

# ‘사회적 그늘’을 보는 슬픈 시선 담았죠

담양출신 손택수 시인 신작 시집  
‘어떤 슬픔은 함께 할 수 없다’ 출간  
고향 그리움·인생 성찰 등 형상화



‘시집(詩集)’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생각 없이 지은 시가 신기하게도 뜻일과 꼭 맞는 것”을 일컫는다. 시를 쓰는 시인들은 더러 예언자 같다. 자신이 쓴 시가 얼마 후 시간이 지나 현실에서 유사한 경우가 일어나기도 한다.

비단 시편이라. 살다보면 더러 그런 일이 있다. 무슨 말을 했는데 얼마 후 그 일이 놀랍게도 현실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말에는, 언어에 힘이 있다는 것은 그런 예를 두고 이른다.

담양 출신 손택수 시인이 신작 시집을 펴냈다. 시집의 제목이 눈길을 잡아끈다. ‘어떤 슬픔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제목은 독자들에게 ‘슬픔’의 본질과 의미를 묻게 한다.

“시집을 받아들자마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충분한 애도 없이 망각의 시집을 걸어온 참혹한 결과만 같아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시집’ 같은 게 느껴져서 한동안 시를 쓰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시인의 첫마디였다.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고 편집이 완료된 시집을 받아들자마자 이태원 참사가 발발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이런 경우를 ‘시집’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했다. “어떤 슬픔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슬픔의 아이러니를 표현한 것”이라고. “혹여 그걸 굳이 곧바로 읽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반어적인 충격 효과를 고려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은 지금까지 ‘호랑이 발자국’, ‘뚝뚝 전차’, ‘나무의 수사학’, ‘떠도는 먼지들이 빛난다’ 등과 같은 작품집을 펴냈다. 시집을 발간할 때마다 성실한 문학 여정에 대한 문단의 상찬이 있었다. 현재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홍사옹문학관 관장으로 있다. 또한 여러 편의 시들이 국어교과서에 실리고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등 작품성과 일상성을 인정받고 있다.

기자는 그의 시에서 늘 시의 진정성을 보곤 했다. 삶의 그늘진 곳이나 주목을 받지 못한 이들의 삶까지도 따스하게 깨닫는 작품은 오랜 여운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의 시는 신파조로 흐르지 않았다. 탄탄한 시적 구성과 깊은 울림과 수사와 이미지로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이번 시에서도 그는 “도무지 시가 될 것 같지 않은 난처한 국면들, 관계들, 느낌들, 제 공식적 이력에서 지워진 삶의 편린들을 점묘하듯 써내려갔다”며 “구성을 하면서도 또렷한 의미나 주제의 줄기를 따라가기보단 분위기의 흐름을 따라갔다”고 말했다.

시인은 시를 쓸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사회적 그늘’이 개인의 경험적 측면과 얼마나 육화되었는가를 숙고한다.



〈손택수 시인 제공〉

“용산참사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시집 ‘나무의 수사학’을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청소년 시집 ‘나의 첫소년’을 냈어요. 세월호 참사는 개인적인 비극들과도 겹쳐지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집에 실린 ‘바다 무덤’ 같은 시가 그때 쓴 작품입니다. 이 시를 퇴고하는 동안 사회적 그늘이 제 개인의 경험단위에서 육화되었는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당위적 가치를 추구하다 자칫 위선이 발동하면 안 되니까요.”

이번 시집에 유독 ‘슬픔’이나 ‘눈물’ 같은

시어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런 연유다. 시인은 그것을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겠다고도 했다.

그렇다고 시인은 ‘슬픔’과 ‘눈물’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 인생의 희로애락을 한 편의 시로도 노래한다.

“나란 늘 엇걸 같은 것인가/ 엇걸의 불일치로 결과부좌를 틈 것이 나인가/ 조금씩은 늘 허전하고. 부끄럽고, 불만스러웠으나 조금씩은 어긋나 있는 생을 자전처럼 붙들고 회전하면서...”(‘완전한 생’ 부분에서)

시인은 고향인 담양을 떠나 한때는 영남에서도 살았다. 그리고 현재는 수도권에서도 거주한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 떠났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그는 그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한다.

“영산강 물 냄새가 그리워 세숫대야에 코를 대고 스포이드처럼 빨아 마셔본 적이 있어요. 코가 메워지면 마치 고향 냇가에서 무자백질을 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독한 향수병이죠. 요즘은 도둑귀향이라도 하듯이 찾아가서 읍내 모퉁방에 들어가 수돗물 냄새를 맡아보기도 합니다. 고향도 너무 변했으니까요. 고향에 와도 내국 디아스포라 같은 쓸쓸함이 가시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회귀 중인 코끝의 그 매운 ‘감각’ 속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문학관의 아카이브를 꾸준히 실행하고 싶다는 답이 돌아온다. 사실 새로움이란 것이 가지없는 타자가 되기 위해선 사회적 기억 속에 보존된 옛것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고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인협회 ‘올해의 시문학상’ 배순옥·이강요·이숙자 시인



배순옥 시인 | 이강요 시인 | 이숙자 시인

광주시인협회(회장 김석문)가 수여하는 올해의 시문학상에 배순옥, 이강요, 이숙자 시인이 선정됐다.

광주시인협회는 최근 심사회를 갖고 올해의 시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배순옥 시인은 ‘삼각변주곡’의 2편에서 연주의 극적 메카니즘을 다루는 솜씨에서 한 경지를 보였다”고 평했으며 “이강요 시인의 ‘세월의 오후에’의 2편은 서정시의 공감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 구사가 감각적이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숙자 시인의 ‘초승달과 어머니’의 2편은 쉽고 잔잔하게 읽히는 서정시 근원을 잘 보였다”고 평했다.

또한 광주시인협회는 올해의 작품상도 선정했다. 손형섭 시인의 ‘내 사랑 백합화’, 박연식 시인의 ‘피그말리온 효과’, 문병균 시인의 ‘그 꽃에 내 마음 솔깃한 까닭’이 수상자의 주인공.

심사위원회는 “손 시인은 ‘내 사랑 백합화’에서 강하게 사랑의 재현을 노래했고, 박 시인은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지화상적인 노래를 통해 간절한 호소력을 드러내었고, 문병균 시인은 ‘그 꽃에 내 마음 솔깃한 까닭’으로 내밀한 순수를 진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16일 광주시인협회 정기총회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40년 전 통기타 거리 속으로

광주 청년 뮤지션들, 내일 사직동 라이브 카페 사직골 공연

40여년 전 본격적이던 통기타 거리를 회상해 볼 수 있는 청년들의 공연이 광주시 남구 사직동에서 열린다.

남구 사직동에 위치한 라이브 카페 사직골에서 청년 뮤지션들이 통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사직골, 청년의 밤’이 17일 오후 6시 열린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이번 공연에는 조선대학교 밴드 동아리 ‘소박한 기쁨’과 포크,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낚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형주, 호소력 짙은 음색의 동신대 ‘대동가요제’에서 1등상을 수상한 대학생 김대본이 함께한다.

‘사직골, 청년의 밤’은 (사)청년문화허브가 주최·주관하는 실무형 문화기획 전문학교 ‘호랭이스쿨’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청년문화허브 교육과정을 이수한 김서현씨가 총괄 기획



이형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을 맡았다. 김서현 씨는 “1980년 사직동 통기타 거리는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곳이었었는데, 이제는 광주 사람들도 잘 모르는 장소가 됐다. 40년 전 그날처럼 청년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재현해보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

## 소프라노 장은녕과 ‘낭만의 밤’

19일 광주 디엠홀서 독창회...슈베르트 등 6명 작곡가 12곡

소프라노 장은녕 독창회가 19일 오후 3시 광주디엠홀에서 열린다.

(사)빛소리오페라단과 전남오페라단 주최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슈베르트와 헨델, 안정준 등 6명의 작곡가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반주에는 천현주가 함께한다.

소프라노 장은녕은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부천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네오피오펠레스트라 등과 협연했다. 이후 오페라 ‘팔리아치’, ‘라 트라비아타’,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수많은 콘서트를 선보이며 광주와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번 선보이는 노래는 총 12곡으로 슈베르트 ‘바위 위의 목동’과 헨델의 ‘사랑스런 그대 눈동자여’, ‘참 기쁨’, ‘나를 울게 하소서’와 리스트의 ‘오 내가 꿈꾸는 동안’, ‘즐겁게 그



리코 슬프게’, ‘오 사랑하라 그대가 사랑할 수 있는 한’이다.

이어 안정준의 ‘아리아리랑’, 에이미 비치의 ‘세 개의 브라우닝’, ‘봄의 해’, ‘사랑! 단하루’, ‘내 마음을 당신께 보

냅니다’, 도니체티의 ‘주위는 침묵에 잠겨’를 노래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전화(062-227-7440)로 예매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생태적 삶을 향한 시적 여정

‘연경인문예술연구소’ 고재종 시인 18일 강연

생태 환경과 생태적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21세기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생태인문학이 오늘날 인문학의 새로운 장르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생태적 삶을 시와 결합한 인문학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연경인문예술연구소(대표 석연경·순천시 중앙2길 11-19)는 오는 18일(오후 2시) 고재종(사진) 시인을 초청해 강연을 연다. ‘시의 향기, 삶의 황홀-생태적 삶을 향한 시적 여정’을 주제로 여는 이번 강연에서 고재종 시인은 생태 위기 속에서 인간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하고 시와 생태적 삶을 결합한 강의를 한다. 특히 고재종 시인은 어머니의 시, 존재의 시, 생명의 시, 영혼의 시, 인생의 시라는 다양한 주제로 시란 무엇이며 시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풀어낼 예정이다.

한편 고 시인은 시집 ‘얕강도 아위는 이 그리움’, ‘그때 휘파람새가 울었다’, ‘꽃의 권력’과 시평집 ‘시를 읊자 미소 짓다’ 등을 펴냈으며 소월시문학상, 영랑시문학상, 신동엽문학상, 녹색생명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10-3638-6381. /박성천 기자 skypark@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철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